

# 오피니언

## 월/요/광/장

최협



다니엘 핑크는 그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지난 수십년 간은 특정한 사고를 가진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계약서를 작성하는 변호사, 숫자처리에 뛰어난 MBA 등이 우대를 받았지만, 이제는 창조하는 사람,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패턴을 읽는 사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등이 더욱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래는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사고를 가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더욱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다.

요즈음 새롭게 각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예술가, 발명가,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남을 봐 주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 큰 그림을 그리며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 사고하는 사람 등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이 두 그룹을 비교해보면 이전에 각광받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우대받는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하고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정치계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의 기저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모름지기

## 시대의 흐름 읽기

'노동의 종말'과 '양극화의 심화' 같은 시대적 상황을 꿰뚫어보며, 그러한 문제를 보통사람들의 삶 속에서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구태를 벗어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최근 광주에는 '창조도시'의 창시자 찰스 랜드리가 와서 매우 유익한 두 가지 제언을 해주고 갔다. 그에 의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들이 도시를 선택한 후에 일을 만드는 시대"가 됐다는 것

이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인 '창조계층'이 더욱 그렇다 한다.

광주가 창조도시, 문화도시로 성공하려면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된다. 이를 달리 풀이하면, 광주에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도시를 외부인들이 와서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암시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아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 것인가? 랜드리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삶의 편의성', '꿈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독특한 도시

를 추구할 것'을 들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도 도시가 만일 '개방'과 '관용'의 정신이 결여되어있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는 수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어 스스로 찾아와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도시환경 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가 갖는 '무한한' '개방성'과 '포용성'이 그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랜드리는 광주라는 도시가 외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덧붙

였다. 도시의 정체성이란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주창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자생적인 노력과 더불어 외부와의 소통 역시 중요하다는 말이라 해석된다.

광주의 미래는 앞으로 새로운 창조계층이 형성되어 사회발전의 중심세력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긍정적 발전을 기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새롭게 우대받는 집단의 역할이 크게 성장할 수 있어야한다. 이는 구태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함을 뜻한다.

또 한편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프로젝트에 매달리기보다는 도시 구석구석을 사람 냄새가 나게끔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눈과 귀와 마음을 세게로 열어 놓고 소통하고 실천하는 개방과 포용의 정신이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평화'의 도시로 불리는 제네바에는 루소와 칼베트의 정신을 실천하는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활동하고, 제네바사람 뒤남이 창설한 '국제적십자연맹'의 본부가 있으며, 인구의 절반이 외국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는 제네바를 평화의 도시로 인정하고 부른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전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여수시의회 사태, 의정공백 대책 시급하다

여수시의회가 '의정 마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이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는데 이어 현재 최종 판결을 앞둔 의원 3명도 당선 무효형 확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4명의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회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당시 오 전 시장의 운동원으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 외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원 3명도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여수시의원 26명 중 4분의 1이 넘는 7명이 의원직을 잃게 될 공산이 커졌고, 정족수 미달에 따른 의회 기능 마비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무더기 의원직 상실로 파생된 의정 공백과 보궐선거가 당장 내년 5월 열릴 세계박람회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박람회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관에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면 행정력과 시민들의 결집력이 그만큼 약화되기 때문이다. 여수시와 시의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부자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보궐선거에 따른 여수시 부담액도 1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셈이다.

이는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의 탓도 있지만 이들에게 표를 준 시민들의 책임도 크다. 검증도 제대로 못하면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막중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시민들이 보궐선거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지방의회 일탈을 방지해선 안 되는 이유다.

의회가 불·탈방으로 얼룩지자 양도 록 시민들이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같은 합법적 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물가 불안 공공행진, 정부는 대체 뭘 하나

물가 오름세가 공포스럽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이후 3년여 만에 5%대를 넘어지면서 서민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연말 연시 줄줄이 예고되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까지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54일째 상승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당 2016원을 기록, 2000원을 돌파했다. 자동차용 경유도 52일째 올라 1당 1777.50원을 웃돌고 있다.

우유 값도 크게 올라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다. 서울우유, 매일유업에 이어 남양유업도 다음달 1일부터 우유가격을 1당 1470원에서 1608원으로 138원(9.4%) 인상하기로 했다. 우유 값 인상은 분유와 빵, 과자, 음료, 빙과류 등 유제품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다.

또 물가 불안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나타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지역 내 35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가 99로 한 달 전 100보다 1포인트 떨어지는 등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 속에 서민물가의 폭등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은 여전히 결집하고 있다.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고 환율 하락도 응징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도 등 지자체도 물가 상승률이 타지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읍식값과 공공요금 등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서민 가계가 물가고와 빚더미로 파산관심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다. 또 물가 불안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나

타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지역 내 35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가 99로 한 달 전 100보다 1포인트 떨어지는 등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 속에 서민물가의 폭등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은 여전히 결집하고 있다.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고 환율 하락도 응징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도 등 지자체도 물가 상승률이 타지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읍식값과 공공요금 등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서민 가계가 물가고와 빚더미로 파산관심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다. 또 물가 불안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나

## 법조칼럼



최인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을까.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처벌조항만도 약 300개에 달하니 특기법이나 도로교통법 같은 특별법을 더하면 1000여 개는 족히 넘을 것이다. 이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죄, 다시 말하면 죄(罪) 중의 죄(罪)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10계명을 인류 최초의 법이라 할 만한다. 그 중 5가지 계명이 오늘날의 범죄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다른 것은 쉽게 수긍이 가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이 왜 그때부터 그렇게 중요했을까.

당시는 문자가 일반화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은 주로 목격자를 비롯한 증인의 말(증언)에 의존해서 이루어졌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당시에는 “사람의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언이나 세 증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신명기 19 : 15)하도록 했다. 증인이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위증을 특히 엄벌하였는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형제를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피한 그대로 처벌”(신명기 19 : 19)하도록 하였다.

즉, 살인 사건에서 위증한 사람은 살인범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고, 절도 사건에서 위증한 사람은 절도범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위증한 사람이 어떤 사건에서 위증했는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니(형법 152조), 살인죄의 형벌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250조)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고대의 10계명이 더 분방을 만 해 보인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두고 거짓말을 했으니 거짓말과 위증의 역사는 곧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원죄(原罪)처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 울에서 어떤 사기 재판을 하는데, 관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피고인까지 모두 서울법대생 이더라는 웃지 못할 말처럼, 학력이나 신분, 경제력, 성별, 연령을 가리고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거짓과 허위가 만연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는다.

필자는 거짓말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사건을 재판하면서 한동안 마음이 아팠다. 대략 감사인 A씨는 후에 여자에게 ‘미국에 유학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한 후 출국사까지 처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흠이 없이 자라온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사귀던 여자가 외국 생활만을 고집하자 우선 여자를 붙잡을 생각이 거짓말을 하고 결혼한 것이었

다. 온갖 핑계로 출국일자를 미루어 가며 거짓말도 3개월을 버티오던 그는 출국하기로 약속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극심한 압박감에 처를 죽이거나 자신이 죽어 버릴 생각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날 저녁 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미국행 항공권과 비자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자, A씨는 준비한 식칼로 처를 마구 찔렀고 마침 안방에 있던 장인과 장모가 비명을 듣고 뛰쳐나오자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마구 식칼을 휘둘러 세 사람 모두를 살해하고 말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신고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눈물로 참회하였으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거짓말은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다. 우리 무의식적으로 하는 욕이나 아첨하는 말, 폭력적인 언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선의의 거짓말 ... 이 모두가 결국은 그 자체로 거짓말이거나 자기행동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한 번 내뱉은 작은 거짓말은 별 죄의식 없이 또 더 큰 거짓말을 지어낸다.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비록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생명과 평화의 언어가 이 세상에, 그리고 법정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 본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기고



김종식

희망과 기대를 안고 민선5기 서구 구정을 이끌어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됐다. 작년 10월 27일 재선거를 통해 서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민선5기를 4개월 정도 늦게 출발했으나, 늦은 만큼이나 1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여과없는 목소리를 전해 듣고자 등 순회방문과 구정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자주 가졌다. 또 주민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기 위해 200여 개소의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230여 개소의 보육시설 등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이처럼 서민생활 구석구석을 파고들면서

### 서구민 한가족되기는 계속됩니다

새삼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현실이었다. 실제로 우리 구만 하더라도 현재 4만1000여 명의 주민들이 국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민선5기 서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노인과 서민생활 안정에 행정의 최우선점을 둔 이 유가 여기에 있었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 고민한 이유도 이때문이었다. 그리고 얻은 해답이 바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이하 한가족되기운동)이었다.

한가족되기운동은 후원자와 저소득가구 수혜자 간 일대일 결연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체와 기관·단체, 종교계, 의료계 그리고 일반 주민들까지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가족되기운동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서구민 한가족되기기행운동'을 힘

차게 펼쳐왔다. 그 결과 연평균 300~400명 이던 후원자가 1100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수혜자 역시 3배 정도 늘어난 18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뛰어 넘어 이제는 공공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자 우리 구민의 차별화된 복지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직소민원실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공무원의 불친절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만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직소민원실을 설치했다.

법과 제도에만 얽매었다 보니 정작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이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 직속하에 설치한 것이 바로 직소민원실이다. 영조물론 인한 피해문제에서부터 일조권으

로 인한 열점과의 분쟁 그리고 생활주변 불편사항 및 공무원의 불친절 등 직소민원실의 문을 두드리는 목소리 또한 다양했다.

민원이 접수되면 2~3일 이내에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지금까지 65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지금은 입소문이 퍼지면서 시정 초기보다 민원이 두 배 이상 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억되는 일들이 많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수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열악해진 구 재정정의 조기 정상화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중앙부처와 광주시 등 상급기관과 부단히 접촉하여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데 온 힘을 쏟을 각오다.

특히,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노인과 서민생활안정에 행정의 최우선점을 두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머지않은 미래 전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우리 서구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광주시 서구청장>

###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끌리는 건 스펙보다 열정·관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과자를 매우 좋아한다. 그러나 과자 봉지의 포장을 뜯게 될 때 실망스러웠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감자 칩의 경우 내용물이 원래 포장의 1/3 정도만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고나 포장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 내용물인 과자의 질과 양에 충실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부풀려진 봉지 과자를 보며 '이태백'이라는 단어가 보편화하여버린 현실 속에서 취업공부에 매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떠올린다. 그들은 학점 관리와 공인 영어성적을 올리는 데 열심이다. 게다가 주말 아침이면 평일에 늦잠을 자던 친구도 일찍 일어나 봉사활동을 위해 간다. 그들은 스펙이라는 결과를 만들기에 분주하다. 취업 준비생이 기

업에 입사하여 일할 때에는 이러한 스펙이 업무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스펙보다는 지원자의 열정과 경험을 중시한다. 취업정보 회사에서 기업 인사담당자 258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스펙과 업무능력이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78.7%나 됐다. 오히려, 인사담당자들은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희망 분야에 관련된 경험이나 열정이 취업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관심은 매우 값있다. 하지만, 단순히 피상적

으로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 희망분야에 열정을 쏟기보다는 자신의 스펙 관리에 힘쓰는 것은 손이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새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가 한창이라 취업 준비생들은 다들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바쁘다. 과자 내용물보다는 겉모습만을 부풀려진 봉지 과자와 같은 자기소개서가 아닌 길 바란다. 오히려, 취업 준비생들이 희망 분야에의 열정과 관심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추정민·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회장 <b>金鐘宅</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柳濟喆</b> 논설주간 <b>申港樂</b> 편집국장 <b>曹庚完</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국선정·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선 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